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 번역가’ 문체 연구

김 동 미
(세종대)

1. 서론

번역을 수행하기 위해 번역가는 필연적으로 원천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게 된다. 번역가가 이들 양쪽 문화와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번역을 수행했느냐에 따라 번역 결과물의 완성도는 물론 그것을 읽는 독자의 반응과 만족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모든 번역가의 최대 목표는 원천 텍스트의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표면적 내용과 그것의 함축적 의미 등을 목표 텍스트에서 충실하게 재현함으로써 번역을 통하여 목표 텍스트의 독자들이 가능하면 더욱 충실하게 원전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적·언어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가 완벽하게 등가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번역가가 처한 문화적 환경과 번역가 특유의 문체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언어적 환경에는 원작의 저자와 번역가 성별의 차이에 따른 문체의 차이도 포함된다. 양질의 목표 텍스트는 원천 텍스트의 문화 뿐 아니

라 저자의 성별에 따른 다를 수 있는 문체까지도 충실하게 재현될 때 가능하다. 그 이유는 번역가가 처한 문화적 환경과 번역가 특유의 문체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영어로 된 문학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가의 성별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체를 연구하기 위해 일곱 편의 영·미 문학작품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를 문학 작품 번역으로 제한한 이유는 문학작품은 정보의 전달이 중요한 일반 텍스트 보다 여성어를 포함한 원천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이 충실하게 반영되고 재현되어야 할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인 문학작품 선정 할 때 데이터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 출신 작가의 비율은 물론 원천 텍스트 저자의 성별 비율도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번역 문체의 차이를 가능하면 통시적으로도 관찰하기 위해 원로 번역가와 젊은 번역가의 비율도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출판사별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번역 작품을 순서대로 선별한 결과 다음의 일곱 편이 선정되었다. 이들 일곱 편의 작품은 『제인 에어』(*Jane Eyre*),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 등 영국 작가의 작품 세 편과, 『갈매기의 꿈』(*Jonathan Livingston Seagull*),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Sea*), 『위대한 갯츠비』(*The Great Gatsby*), 『마지막 잎새』(*The Last Leaf*) 등 미국 작가의 작품 네 편 등이다. 이들 일곱 편의 작품들 중 여성 작가의 작품은 세 편이고 남성 작가의 작품은 네 편이다. 리처드 바크(Richard Bach)의 『갈매기의 꿈』은 남성 번역가 신동운, 오영민과 여성 번역가 이덕희, 송은실의 작품을 선정하였고,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노인과 바다』는 원로 남성 번역가인 황중호, 이경식과 여성 번역가 이혜리, 홍미란의 번역 작품을,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에서는 남성 번역가 김성구와 박종학의 번역 작품과 여성 번역가 김수연과 김문영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위대한 갯츠비』의 경우에는 남성 번역가 김의승과 김옥동의 번역 작품과 여성 번역가 김연희, 유혜경의 번역 작품으로, 오 헨리(O. Henry)의 『마지막 잎새』는 남성 번역가 박수남, 강영길의 작품과 여성 번역가 김선영, 신현미의 번역 작품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또한 제인 오스틴(J. Austen)의 『오만과 편견』에서는 남성 번역가 홍건식과 여성 번역가 정은경의 작품을, 에밀리 브론테(E. Brontë)의

『폭풍의 언덕』은 남성 번역가 안동민과 여성 번역가 김은정의 작품을 각각 비교·분석하겠다.

고등 교육의 기회 확대로 한국의 여성 번역가들의 번역 분야 참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 존재하는 여성어나 여성 번역가의 문체 연구는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행해지는 여성 문체나 여성 번역가의 번역 문체 연구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한 번역시 목표 텍스트인 한국어에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왔던 여성과 남성의 번역 문체 특성을 조사·분석하는 작업은 그 필요성이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를 통하여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문체적 등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번역 전략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보다 더 완성도가 높은 목표 텍스트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영어 여성어의 특성과 의미

영어에서 여성 문체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행해졌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성 문체 연구는 여러 연구가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셰리 사이먼(Sherry Simon 1996:112)은 여성 번역가의 번역은 “가부장적 언어에 대한 저항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그들은 텍스트에 들어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최대한 살려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문학과 번역 부문에서 여성들은 문체를 통하여 여성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성적 글쓰기를 완성해나갔다. 애너트 콜로드니(Annette Kolodny 1975:75)는 “여성과 남성의 글쓰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여성 소설에 나타난 여성어를 중심으로 여성 문체의 특성을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레인 쇼왈터(Elaine Showalter 1971:88)는 “여성어 연구의 필요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남성의 글쓰기와 남성어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미라 켈렌(Myra Jehlen 1981:64)도 글쓰기와 여성학과 연계시키며 “여성과 남성의 글쓰기 차이를 비교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학 작품의 번역시 나타날 수 있는 여성 번역가와 남성 번역가의 문체적 차이와 특징을 연구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우선 여성들이 사용하는 어투와 문

체에 대해 살펴보겠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로 자주 사용하는 문체가 있다면 이러한 특성들이 번역시에도 나타나는데 대해 주목해 보겠다. 위와 같이 분석하는 이유는 작품의 주제나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작가에 의해 선택된 어휘 하나하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작가가 여성어를 자주 사용했다면 그것은 분명 의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나 표현을 번역할 때 작품의 진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여성어 등 작품에 사용된 언어를 충실하게 재현해야 할 책임이 번역가에게 있다. 이번 절에서는 로빈 레이코프 등 기존의 학자의 의해 규명된 여성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사용하는 표현이나 어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여기서 찾아진 특징들은 앞으로 번역된 문학작품을 여성어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틀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1 영어 여성어의 어휘 특성

영어 여성어의 연구는 원작가의 성이 남성인 경우 또는 여성인 경우 원작의 여성어를 얼마나 등가성을 유지하여 번역하였는지 비교하기 위해 여성어의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어에서 여성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후 한국어 여성어의 일반적 특성을 짚어보겠다. 이러한 여성어의 공통된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목표 텍스트에 나타나는 여성번역문체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준이 된다. 영어 여성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연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다음과 같은 규범에 의해 살펴보겠다. 첫 번째 연구의 규범으로 영어 여성어의 어휘적 특성이다.

로빈 레이코프(Robin Lakoff 1975:120)는 여성어의 특성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문법을 더 따른다”는 점을 들었다. 레이코프의 이러한 주장은 피터 투러질(Peter Trugill 1975:77)에 의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투러질은 디트로이트(Detroit) 시에 거주하는 상류층과 하류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I don’t want none”과 같은 비표준문법적 중복 부정문의 사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 중복 부정의 계층별/남녀별 사용 비율

	중상류층	중하류층	상노동층	하노동층
남성	6.3%	32.4%	40.0%	90.1%
여성	0.0%	1.4%	35.6%	58.9%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상류층 여성에게서는 비표준문법을 사용하는 예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같은 중상류층에 속한 남성에게서는 조사대상의 6.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표준문법을 사용하였다. 중하류층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의 1.4%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비표준문법을 사용하였고, 같은 계층 남성의 경우는 그보다 무려 23배가 넘는 32.4%가 비표준문법을 사용하였다. 상노동층의 경우 남성의 비표준문법 사용률은 40.0%로 같은 계층의 여성보다 4.4% 포인트 높았으며, 하노동층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31.2% 포인트 더 많은 남성들이 비표준문법을 사용하였다. 투러질의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계층에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 문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 여성어의 특징에 높은 표준문법 선호도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여성의 번역 문체를 분류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니 체셔(Jenny Cheshire 1982:113)도 남녀 간의 문법 준수 정도의 차이를 조사·분석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언어 사용 패턴을 11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1) 'They calls me all the names under the sun, don't they?'의 경우와 같이 주어가 복수인 문장에서 동사에 's'를 붙이는 등 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You just has to do what the teachers tell you.'에서 볼 수 있듯이 'has'를 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3) 'It ain't no pedigree or nothing'에서처럼 부정 불일치를 사용하는 경우, 4) 'You was with me, wasn't you?' 와 같이 'was'를 표준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5) 'I never went to school today'에서 보는 것처럼 'never'를 표준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6) 'Are you the little bastards what hit my son over the dead?'에서처럼 'what'을 표준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7) 'She cadges, she do'에서처럼 'do'를 표준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8) 'I come down here yesterday'의 경우와 같이 시제를 표준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9) 'I ain't seen my Nan for

nearly seven years’에서와 같이 조동사 ‘have’를 표준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10) ‘Course I ain’t going to the Avenue’에서처럼 조동사 ‘be’를 표준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11) ‘You ain’t no boss’에서처럼 연사에 있어서 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등 모두 11가지이다. 다음은 위에서 체셔가 나눈 11가지 비표준문법의 남녀 사용 비율의 통계이다.

<표 2> 비표준문법의 남녀 학생별 사용 비율

	남학생(%)	여학생(%)
-s	53.16%	52.04%
has	54.76%	51.61%
was	88.15%	73.56%
부정일치	88.33%	51.85%
never	46.84%	40.00%
what	36.36%	14.58%
do	57.69%	78.95%
come	100.00%	75.33%
조동사 have	92.00%	64.58%
조동사 be	74.19%	42.11%
연사	85.83%	61.18%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체셔의 연구는 11가지 범주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표준문법을 자주 쓰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문법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표준 문법을 더 지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존 피셔(John Fisher 1985:70)는 뉴잉글랜드 지방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언어를 연구하여 여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변이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남학생들은 비표준형인 [ɪŋ]을 여학생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곧 영어에서 “남성과 여성이 발화하는 언어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에 따라 선호하는 발음형이 있다”(피셔 1985:70)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여성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언어형태인 표준발음과 문법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에 대해 메리 리치 키(Mary Ritchie Key 1975:99)는 “평소에 여성이 갖기 어려운 사회적 지위를 언어적인 면에서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이

라고 설명한다. 투러질(1975: 67)은 여성의 이러한 경향은 첫째, 여성이 “자식 양육과 문화 전수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지식들의 모범적 규범 습득이 갖는 중요성을 남성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남성의 사회적 위치보다 불안정한 것이어서 여성들은 언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확실하게 표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여성들이 표준어 사용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이유는 사회적 지위나 그 성취도에 의해 자신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모습을 언어를 통해 평가받고 인정받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레드 스트로버트와 리처드 만(Fred Strobert and Richard Mann 1956: 88) 그리고 파멜라 피시먼(Pamela Fishman 1980 112) 등은 여성이 남성보다 각종 형용사와 ‘so,’ ‘just,’ ‘simply’ 등과 같은 부사를 더 자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여성의 빈번한 부사 사용에 대한 오토 예스페르센(Otto Jespersen 1922 247)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awfully,’ ‘pretty,’ ‘terribly,’ ‘nice,’ ‘so,’ ‘lovely’ 등의 부사를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자주 사용하며 특히, ‘so’ 는 여성적 강조 부사로, 영어 여성어의 뚜렷한 특징이 된다. 예스페르센(1922 249)에 의하면 여성이 이러한 ‘so’와 같은 어휘를 남성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여성이 할 말을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시작하여 문장을 완결된 상태로 끝내지 않고 ‘so-that’ 구분에서 ‘that’ 이하의 뒷부분을 잘라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우, 아주’라는 강조 부사를 쓰게 되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격식을 갖추거나 감정 중립적인 언어보다는 비격식적이고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예라고 하겠다.

프란시스 워드호(Francis Wardhaugh, 1992 307)는 대화에서 “자신의 정확성을 단언할 수 없을 경우, ‘well,’ ‘y’know,’ ‘sorta,’ ‘kinda’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휘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예스페르센(1922 56)은 ‘I guess,’ ‘I think’ 등의 사용과, 의문대명사에 ‘ever’를 덧붙여서 의문대명사를 강조하는 것도 흔히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설명한다. 제니퍼 코츠(Jennifer Coates 1992 116)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I ‘think,’ ‘I’m sure,’ ‘you know,’

‘sort of,’ ‘perhaps’ 와 같은 애매어(hedges) 어구를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 사용하였다. 제넷 홈스(Janet Holmes 1984 132)는 ‘you know’라는 표현을 남녀 화자가 각각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가를 조사하였다. 그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여성 89명 중 56명은 자신감을 나타낼 때, 33명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전체 87명 중 37명이 자신감을 가질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50명은 확신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성들은 이 표현을 자신감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남성은 자신감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어휘라도 여성과 남성이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어의 특징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츠(1986 67)는 여성이 남성보다 애매어(hedges)를 더 빈번히 사용하는 이유를 여성이 “불확신성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 여성의 경우 “주변으로부터 여성답다거나 여성스러운 말씨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간주되기 위해 대화 시에 애매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한다.

레이코프(1975 98)는 색에 관한 표현 등을 조사하여 “여성이 사용하는 표현이 남성의 표현보다 좀 더 세분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예를 들어 여성은 ‘mauve,’ ‘ecru,’ ‘aquamarine,’ ‘lavender,’ ‘magenta,’ ‘beige’ 등의 색을 남성보다 더 섬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외에도 그는 여성의 경우 ‘lovely,’ ‘charming’과 같은 형용사와 ‘so,’ ‘such,’ ‘quite,’ ‘just,’ ‘never,’ ‘extraordinary’ 등과 같이 강조사를 자주 사용하여 감정표현을 한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또 다른 특색은 ‘ducky,’ ‘ritzzy,’ ‘yukky,’ ‘yummy,’ ‘lovely,’ ‘peach,’ ‘sweetie,’ ‘cutie’처럼 어미에 ‘-y’또는 ‘-ie’ 를 붙여 청각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브라운 페넬로프 (Brown Penelope 1980 109)는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정중함, 말을 개입할 때의 사과 등과 표현이 그것이다. 페넬로프는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유형을 “무력한 언어”(powerless language)로 지칭하였다. 윌리엄 오바 와 애킨스 바우맨(William O’Barr and Atkins Bowman 1980 97)는 법정에서의 여성 증인과 남성 증인의 언어사용 유형을 조사하여 페넬로프의 연

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그는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 증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10가지 특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나열하면, 1) 애매어(sort of, kind of, I guess)의 빈번한 사용, 2) 과도하게 정중한 표현(Would you please, I'd really appreciate)의 사용, 3) so, very 등을 강조하여 읽기, 4) 부가의문문의 사용, 5) (divine, charming, sweet, adorable) 등과 같은 의미 없는 형용사, 6) 표준화된 문법과 발음 사용, 7) 유머감각의 부족, 8) 특별한 어휘의 사용, 9) 빈번한 직접인용, 10) 특이한 의문문 억양 등이다.

지금까지 영어의 여성어 특성으로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많이 사용하는 어휘들과 문법적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표준 발음과 표준 문법을 선호하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자주 사용하는 부사가 있다는 사실과 색에 관한 표현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러한 여성어의 특징은 원천 텍스트에 이렇듯 여성어적 특성을 지닌 언어가 등장하였을 때 그것을 목표 텍스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언어로 번역하는지 비교 분석하는 잣대로 사용될 것이다.

3. 한국어 여성어의 특성과 의미

3.1 한국어 여성어의 어휘 특성

이번 절에서는 한국어 여성어의 어휘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목표 텍스트인 한국어 텍스트에서 동일한 원천 텍스트의 어휘나 문장을 여성과 남성이 각각 어떠한 문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지, 또 성에 따른 어휘적·문법적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사용될 것이다.

이석규·김선희(1992: 117)에 의하면 한국 여성어의 어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것'보다는 '따른 것', '조금'보다는 '쪼금', '작다'를 '작다'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이 비교적 남성보다 경음을 많이 사용한다.

둘째, 여성이 'ㄹ'첨가를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여성은 '이거로'를 '요걸로', '그러려고'를 '그럴려구' 혹은 '그럴라구' 등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남성

의 경우보다 많이 발견된다. ‘안올래다가,’ ‘알아볼라구’ 등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셋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축약된 형태의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치?’, ‘근데,’ ‘어쩐,’ ‘-죠,’ ‘-잖아요’ 등의 어휘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작고 귀여운 어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시사를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한국 여성어의 중요한 어휘적 특성중 하나이다. 여성어에서는 어둡고 무거운 느낌의 음성 모음이나 중성 모음이 양성 모음으로 교체되어 작고 귀여운 어감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요것,’ ‘고것,’ ‘조것,’ ‘요기,’ ‘고기,’ ‘조기,’ ‘요겨,’ ‘고겨,’ ‘조겨,’ ‘요게,’ ‘고게,’ ‘조게’ 등의 어휘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어 여성어의 어휘적 특징으로 민현식(2003 99)은 ‘너무’와 같은 부사의 빈번한 사용을 든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아주 잘 어울린다’ 대신 ‘너무 잘 어울린다’ 를, ‘굉장히 시끄럽다’ 대신 ‘너무 시끄럽다’ 를 ‘매우 많이 먹었다’ 보다는 ‘너무 많이 먹었다’ 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민현식(2003 99)은 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빨리빨리,’ ‘어머어머,’ ‘뽀니뽀니,’ ‘보들보들,’ ‘진짜진짜,’ ‘그래그래’ 등이 좋은 예이다.

이외에도 구현정(2003 270)은 “여성이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관심을 표현하는 ‘그래서?’ ‘그런데?’, 동감을 표현하는 ‘그러게 말야,’ ‘그럼,’ 동정을 나타내는 ‘저런,’ ‘쫂쫂,’ ‘어쩌나?’, 기쁨을 표현하는 ‘참 잘됐다,’ ‘멋지다,’ 그리고 놀라움을 표현하는, ‘어머나!’, ‘정말이야?’ 등의 표현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규홍(2003 40)은 여성들이 놀라움을 나타내는 표현을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에 의하면 한국 여성들은 난처함을 표시하는 ‘난 몰라,’ ‘나 어떻게’ 등을 많이 사용하고, 애매함을 나타내는 어휘로 ‘글쎄,’ ‘몰라,’ ‘몰라몰라’ 등을 즐겨 사용하며, ‘아유,’ ‘아이’ 등 감탄을 표현하는 어휘를 남성에 비해 자주 사용한다. 그는 또 한국 여성들은 ‘피,’ ‘흥’ 등의 질투를 나타내는 표현과 ‘아니야’ 등과 같은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미워,’ ‘각쟁이’ 등의 반의어를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서 ‘맛야,’ ‘있잖아’ 등과 같은 맞장구를 치는 표현과 ‘뽀,’ ‘음’ 과 같은 군말에 해당하는 표

현을 빈번히 사용한다. 여성이 즐겨 사용하는 욕설과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계집애,' '못된 것'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임규홍(2003 42)은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금기어는 많이 쓰나 욕설은 적게 쓰고, 남성은 여성보다 속어를 더 잘 만들고 욕설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 '미쳤어요?', '웬수,' '제 정신이요?'와 같은 일종의 극한적인 금기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임규홍(2003 34)에 따르면 이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장영희(2000 90)의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유어는 남성의 약 50%, 여성의 약 55%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자어는 남성의 약 31%, 여성의 약 29%가 사용하였고, 외래어는 남성의 약 4%, 여성의 약 3%가 사용한다고 조사되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외래어나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며 고유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한국어 여성어의 특징은 경음과 축약 형태의 어휘 사용과 양성모음을 통한 작고 귀여운 어감의 창출, 부사의 반복 사용, 놀라움과 공감함을 표현하는 어휘와 금기어의 빈번한 사용과 한자 기피 현상 등이다. 이러한 여성어의 특징은 한국어 목표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를 여성어로 분류하는 잣대로 사용될 것이다.

4. 목표 텍스트에 나타난 성에 따른 문체의 차이

4.1 어휘적 차이: 부사의 반복사용

이 절에서는 원천 텍스트 작가의 성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로 선정된 모든 원천 텍스트를 대상으로 특정 어휘가 남녀 번역가에 의해 각각 어떻게 번역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성별에 따른 번역 문체의 차이를 분석한다.

『갈매기의 꿈』

<ST1> He learned more each day. (41)

<TT1> 남성번역가)-그는 매일 더욱 배움에 힘썼다. (신동운 37)

<TT2> 여성번역가)-그는 매일 매일 한층 많은 것을 배웠다. (이덕희 38)

<ST2>

Jonathan nodded obediently. (14)

<TT1> MT-조나단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여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들었다. (신동운 14)

<TT2> FT-조나단은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덕희 12)

<ST3>

Forget about faith! Chiang said it time and again. (69)

<TT1> MT-“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에 얼마일 필요는 없어!” 치앙은 몇 번씩이나 이 말을 반복했다. (신동운 71)

<TT2> FT-“믿음에 관한 건 잊어버려라!” 치앙은 이 말을 거듭 거듭 강조했다. (이덕희 70)

위의 세 개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 번역가²⁾는 원천 텍스트의 ‘each day,’ ‘obediently,’ ‘again’이라는 어휘를 각각 ‘매일,’ ‘공손하게,’ 그리고 ‘반복’으로, 여성번역가는 ‘매일 매일,’ ‘고분고분하게,’ 그리고 ‘거듭거듭’으로 번역하였다. 앞서 한국어 여성어 특성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예문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예이다.

『노인과 바다』

<ST1>

The sail was patched with flour sacks and, furlled, it looked like... (9)

<TT1> MT-그 돛은 밀가루 부대 조각으로 여러 군데 기운 것이었는데 돛대에 둘둘 말려 있는 모양은... (황중호 12)

<TT2> FT-돛은 밀가루 부대로 군데군데 기워져 있었고 둘둘 말면... (이혜리 7)

-
- 1) 앞으로 예문의 남성번역가는 MT(Male Translator)로 여성번역가는 FT(Female Translator)로 표기하겠다.
 - 2) 본문 분석의 남성 번역가는 앞으로 ‘남성’으로 여성 번역가는 ‘여성’으로 통일 표기하겠다.

<ST2>

The old man could see the other boats, low on the water and well in toward the shore, spread out across the current. (32)

<TT1> MT-노인은 다른 배들을 볼 수 있었다. 배들은 수면을 기어가듯 바짝 붙어 떠서 해안을 배경으로 하여 조류너머에 한가로이 흩어져 있었다. (이경식 33)

<TT2> FT-노인은 나지막이 물 위에 떠서 해안 쪽에 조류를 넘어 띄엄 띄엄 흩어져 있는 다른 배들을 볼 수 있었다. (홍미란 20)

위의 두 개의 예문을 분석한 결과 번역가의 성의 차이에 따라 일정한 번역 문체가 발견되었다. 남성은 'patched,'와 'spread out'을 각각 '여러 군데'와 '한가로이 흩어져'로 번역한 반면 여성은 동일한 어휘를 '군데군데'와 '띄엄띄엄 흩어져'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부사의 반복 사용이라는 한국어 여성어의 특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외에도 여성은 반복 부사를 사용하여 번역한 예로는 '가물가물해지는,' '후들후들,' '깜빡깜빡해서,' '흔들흔들'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원문과 구체적 번역은 부록 【1】에 수록되어있다.

위에서 분석한 『노인과 바다』의 한국어 목표 텍스트는 출판 시기가 서로 다르고 번역자의 교육 수준이나 성장 배경 등이 모두 다르지만 여성의 작품에서는 반복적인 부사 사용이라는 공통적인 번역 문체 특성이 발견되었다. 남성의 경우에서도 일정한 번역 문체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여성 보다 압축된 언어를 사용하거나 비교적 어려운 어휘, 또는 한자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남성과 여성의 번역 문체 차이는 비교적 격식체를 선호하는 남성언어와 비격식체를 선호하는 여성어와의 차이를 반영한다.

다음은 여성 작가의 작품인 『제인 에어』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문체 특성을 비교·관찰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제인 에어』한국어 번역 텍스트로는 동일한 작품의 번역본 중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많은 박종학과 김성구 등 남성 번역가 두 명과 김문영, 김수연 등 여성 번역가 두 명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렇듯 비교적 많이 판매된 작품을 번역한 번역가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오늘날 유통되는 번역, 특히 번역 문체의 경향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제인 에어』

<ST1>

For me, the watches of that long night passed in ghastly wakefulness;
(20)

<TT1> MT-나는 기나긴 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귀와 눈과 마음은 공포
로 긴장되었다. (박종학 26)

<TT2> FT-나는 기나긴 한밤을 뜬눈으로 무시무시하게 새웠다. (김문영
32)

<ST2>

“How?” “I know nothing about advertizing.” Replies rose smooth and
prompt now. (86-87)

<TT1> MT-“어떤 방법으로?”광고에 관한 것은 모르는데, 이번에는 대
답이 잘 떠올랐다. (김성구 98)

<TT2> FT-“어떤 방법으로?”광고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번
에 대답이 술술 떠올랐다. (김수연 89)

위에 인용된 두 개의 예문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문체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성의 여성어 사용 경향은 이번 작품에서도 남성의 번역 문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나타났다. ‘ghastly’라는 동일한 어휘를 남성은 ‘공포로’로 번역하고 여성은 ‘무시무시하게’로 번역하였으며 ‘smooth and prompt’는 남성의 작품에서는 ‘잘’로 여성의 작품에서는 ‘술술’로 번역되었다. 이는 여성어의 문체 특성인 부사의 반복 사용이 여성의 작품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외에도 『제인 에어』에서 발견한 여성의 부사 반복 사용 예는 ‘merciless,’ ‘tall,’ ‘got warm,’ ‘erie’ 등의 표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남성은 이러한 표현을 각각 ‘사정없이,’ ‘늘씬하게,’ ‘후끈해질’ 그리고 ‘달갑지 않은’ 등으로 번역하였으며 여성은 각각 ‘거칠거칠,’ ‘후리후리,’ ‘후끈후끈,’ ‘무시무시한’ 등으로 번역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문은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위대한 갯츠비』를 통하여 번역가의 성별의 차이에 따른 문체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앞에서 분석한 번역 문체 특성과 비교해 본다. 『위대한 갯츠비』의 번역본 선정은 『제인 에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매량을 주된 기준

으로 하였으며 대상으로 선정된 남성 번역가는 김의승과 김옥동이고 여성 번역가는 김연희와 유혜경이다.

『위대한 갯츠비』

<ST1>

His family were enormously wealthy. (8)

<TT1> MT-그의 집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다. (김의승 13)

<TT2> FT- 그의 집안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김연희 9)

<ST2>

Under the dripping bare lilac-trees a large pen car was coming up the drive. (68)

<TT1> MT-물방울이 떨어지는 라일락 나무 밑으로 커다란 오픈 카 한 대가 차도를 따라 올라와 멈췄다. (김옥동 122)

<TT2> FT-한 대의 대형 무개차가 물방울을 똑똑 떨어뜨리는 한 라일락 나무 아래를 지나 집 안 차도를 달려 올라오고 있었다. (유혜경 131)

위에서 예로 든 남녀의 번역 문장에서도 번역가의 성별의 차이에 따른 문체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원천 텍스트의 ‘enormously,’ 동일한 어휘를 남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로 번역하였고 여성은 ‘어마어마한’ 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dripping’ 을 번역할 때 남성은 글자 그대로 ‘떨어지는’ 으로 번역한 반면 여성은 ‘떨어뜨리는’ 앞에 ‘똑똑’ 이라는 반복적 부사를 첨가하여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들은 여성어의 특성인 부사의 반복적 사용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외에도 『위대한 갯츠비』에서 발견된 남녀의 문체 차이는 ‘right away,’ ‘echolalia,’ ‘almost’ 등의 번역에서도 나타난다. 남성은 이들 어휘를 각각 ‘빨리,’ ‘소음을,’ ‘어느덧’ 으로 번역하였고 여성은 ‘빨랑빨랑,’ ‘시끌시끌한 소리,’ ‘그럭저럭’ 으로 번역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원문의 예는 부록 **【3】** 에 수록되어있다.

다음은 조사 대상 작품 중 나머지 세편, 즉 『마지막 잎새』와 『폭풍의 언

덕』, 그리고 『오만과 편견』에서 발췌한 예문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번역 문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잎새』

<ST1>

“I want to turn loose my hold on everything, and go sailing down, just like one of those poor, tired leaves.” (11-12)

<TT1> MT-“먹는 것두 지쳤구, 모든 것에 대한 짐착에서 떠나, 곧 저 가엾고 고달픈 나뭇잎처럼 아래로 떨어져 가고 싶어.” (강영길8)

<TT2> FT-“...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피곤해. 모든 것에서 차츰차츰 떨어져 가고 싶어. 바로 저 지친 나뭇잎들처럼.” (신현미 12)

이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go sailing down’ 이라는 표현을 남성은 ‘아래로 떨어져 가고’ 로 번역하여 부사를 한번만 사용한 반면 여성 ‘차츰차츰 떨어져 가고’ 로 번역함으로써 부사를 반복해서 사용하였다.

『오만과 편견』

<ST1>

“For heaven’s sake, madam, speak lower.” (97)

<TT1> MT-“제발 어머니, 좀 더 낮은 소리로 말씀하세요.” (홍건식 21)

<TT2> FT-“어머니, 제발 조용조용 말씀하세요.” (정은경 101)

이 작품에서도 부사의 반복 사용이라는 여성어의 특성은 예외 없이 발견되었다. ‘lower’라는 부사를 남성은 ‘낮은 소리’로 번역하였고 여성은 ‘조용조용’으로 번역하였다.

『폭풍의 언덕』

<ST1>

Before long, I heard the click of the latch, and Catherine flew upstairs, breathless and wild, too excited to show gladness. (95)

- <TT1> MT-잠시 후에 빗장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씨가 헐떡거리며
 이층으로 뛰어올라왔습니다.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기빠 보이기
 는 커녕...(안동민 121)
- <TT2> FT-곧 캐서린 아씨가 껍충껍충 이층으로 달려 올라왔는데 너무
 기빠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김은정 109)

위에 인용된 두 작품에서 남성번역가 안동민은 ‘헐떡거리며... 뛰어올라왔습니다’ 로 여성 번역가 김은정은 ‘껍충껍충... 달려 올라왔는데’ 로 번역하였다. 여성의 반복적 부사 사용 현상은 위에서 분석한 세 작품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조사 대상 일곱 권의 영미 소설의 번역본 중 여성은 번역본 모두에서 원천 텍스트의 특정한 어휘가 ‘매일 매일,’ ‘군데군데,’ ‘무시무시하게,’ ‘어마어마한,’ ‘차츰차츰,’ ‘조용조용’ 등처럼 한국어 여성어의 특성이 부사의 반복 형태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남성은 동일한 어휘를 ‘매일,’ ‘여러 군데,’ ‘공포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래로,’ ‘낮은 소리로’ 등으로 번역함으로써 여성의 번역과 확연하게 구별되었다. 이는 한국어 여성어의 특성이 여성이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후에 논의할 번역 전략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번역 경향은 일반적으로 여성 발화자들이 어조(tone)를 낮추고 격식적이기보다는 비격식적인 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강조 부사(intensifier) 또는 반복 부사를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 발화자들이 의식적으로 어조를 낮추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하는 이유는 대화에서 자신의 여성성을 강조하여 귀여운 인상을 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레이코프 1975 75). 한국 여성어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인 부사의 반복 사용(민현식 2003 99; 이석규·김선희1992 77)도 결과적으로 이를 통하여 지나치게 격식을 갖춘 문장보다는 비격식체의 문장을 만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려는 여성어 전략의 하나이고 이러한 전략이 번역시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여성 번역가들의 특성은 앞서 논의한 초기 페미니스트 여성 번역가들이 자신들의 번역 작품에 여성의 목소리를 신기

위해 철자를 달리 사용하거나 특정 문자를 강조하여 그 단어가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는 성향과 그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5. 결론

한국의 번역에 대한 인지도와 번역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연구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시작된 여성언어 및 여성문체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플로투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여성적 번역 문체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여성언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그것과 번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고등교육으로 인한 여성 번역가의 증가는 한국 번역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미나 중요성 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특유의 번역 문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물론 급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국 번역계가 중시해야할 성장 과정의 단계이자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번역 문체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 논문은 문학작품 번역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문체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작품에 알맞은 번역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번역 문체 연구를 문학번역으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문학 작품 번역이 다른 글쓰기의 경우보다 고도의 등가성을 요구하는 섬세하고도 충실한 번역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해 『체인 에어』, 『오만과 편견』, 『폭풍의 언덕』, 『갈매기의 꿈』, 『노인과 바다』, 『위대한 갯츠비』, 『마지막 잎새』 등 일곱 편의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하여 목표 텍스트인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문체 차이를 어휘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작품에서 한국어의 여성어 특성인 부사의 반복 사용이라는 문체적 특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더 많이 발견되었다. 레이코프(1975: 112)는 부사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품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이 번역한 한국어 목표 텍스트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

있었다.

번역 작품을 분석한 결과 여성 번역가들은 원작에 나타난 이러한 여성어적 표현을 충실하게 번역한 반면 남성 번역가들은 여성에 비해 충실하지 못하게 번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번역에도 여성어의 특성이 적용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은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 번역가의 성도 작품의 등가성을 살린 충실한 번역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함축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현대처럼 번역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렇듯 여성 특유의 번역 문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번역 전략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문체 하나에도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을 문학 작품 번역시 이러한 여성적 문체는 충실한 번역과 그렇지 못한 번역을 나누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작, 특히 여성 작가의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원작에 등장하는 여성어를 더 충실하게 번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번역 작가 선정 시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석규 · 김선희. 1992. 『남성어, 여성어에 관한 연구』. 대전 목원대 출판부.
- 민현식 외 2003. 『언어와 사회』. 서울 역락.
- 구현정. 2004. 『대화의 기법』. 서울 경진문화사.
- 임규홍. 2003. 『젠더를 말한다』. 서울 박이정.
- 장영희. 2000. 「20대 남녀 사용 어휘의 대비적 고찰」. 『화법연구』 2. 한국화법학회
- Baker, Mona. 1990. *In Other Words*. London Euroterm.
- Bassnett, Susan and Lefevere, Andre. 1990. *Translation, History, Culture*. London Routledge.
- Brossard, N. 1982. *Picture Theory*, Montreal Éditions.
- Brown, Penelope. 1980, *How and Why Are Women More Polite*. New York: Pager.

- Cameron, Deborah. 1997. *Language and Gender*. London Longman.
- Cheshire, Jenny. 1982. *Linguistic Variation and Social Function*. London Cambridge
- Coates, Jennifer. 1986. *A Sociolinguistic Account of Sex Difference in Language*. New York Routledge.
- Coates, Jennifer. 1992. *Women, Men and Language*. London Longman.
- Daly, Mary. 1978. *Gyn/ecology, Metaethics of Radical Feminism*. Boston Beacon P.
- Fisher, John L. 1985. "Social Influences on the Choice of linguistic Variant," 70
- Francis, Wradrah. 1992. *Dialectology An Introduction*. London Longman.
- Fishman, Pamela. 1980. *Interaction the Work Women D o, Social Problems*. Oxford Pergamon P
- Gray, John. 1993.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New York Harper Collins.
- Hymes, Dell.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113) New York Harper International.
- Holmes, Janet. 1984. Hedging your bets and sitting on the fence some evidence for hedges as support structures, *Te Reo* 2747-62.
- Jespersen, Otto. 1922.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London George Allen & Unwin
- Kramarae, Cheri. 1981. *Women and Men Speaking*. New York Newbury House.
- Key, Mary Ritchie. 1975. *Male/Female Language*. NY Routledge
- Lakoff, Robin. 1975 *Language and Woman's Place*. New York Harper & Row
- O'Barr, William and Atkins, K. Bowman. 1980. *Women Language or Powerless Language*, New York Prager
- Showalter, Elaine. 1971. *Women and the Literary Curriculum*. New York Routledge.
- Simon Sherry. 1996. *Gender i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Strobert, Fred and Man, Richard. 1956. *Sociometry*. London Routledge.
Trudgill, Peter. 1975.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Society*, Harmondsworth
Pelican

분석텍스트

Austen, Jane. 2003.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Penguin Books.

정은경 옮김. 2004. 『오만과 편견』. 오스틴 제인. 서울 청목사.

홍건식 옮김. 2002. 『오만과 편견』. 오스틴 제인. 서울 육문사.

Bach, Richard. 1973. *Jonathan Livingston Seagull*.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

이덕희 옮김. 2005. 『갈매기의 꿈』. 바크, 리처드. 서울 하서.

오영민 옮김. 2004. 『갈매기의 꿈』. 바크, 리처드. 서울 도로시.

신동운 옮김. 2005. 『갈매기의 꿈』. 바크, 리처드. 서울 청목.

송은실 옮김. 2003. 『갈매기의 꿈』. 바크, 리처드. 서울 소담출판사.

Brontë, Emily. 2003. *Wuthering Heights*. London Penguin Books.

김은정 옮김. 2005. 『폭풍의 언덕』. 브론테, 에밀리. 서울 일신출판사.

안동민 옮김. 2005. 『폭풍의 언덕』. 브론테, 에밀리. 서울 범우사.

Brontë, Charlotte. 2000. *Jane Eyre*. New York Oxford UP.

김문영 옮김. 2003. 『제인 에어』. 브론테, 샬럿. 서울 하서출판사.

김성구 옮김. 2004. 『제인 에어』. 브론테, 샬럿. 서울 청목.

김수연 옮김. 2004. 『제인 에어』. 브론테, 샬럿. 서울 일신.

박종학 옮김. 2003. 『제인 에어』. 브론테, 샬럿. 서울 홍신문화사.

Fitzgerald, F. Scott. 2000. *The Great Gatsby*. New York Oxford UP.

김연희 옮김. 『위대한 갯츠비』. 피츠제럴드, 스콧. 서울 하서출판사.

김의승 옮김. 『위대한 갯츠비』. 피츠제럴드, 스콧. 서울 뜻이 있는 사람들.

김육동 옮김. 『위대한 갯츠비』. 피츠제럴드, 스콧. 서울 민음사.

유혜경 옮김. 『위대한 갯츠비』. 피츠제럴드, 스콧. 서울 소담출판사.

Hemingway, E. 2003. *The Old man and the Sea*. New York Simon & Schuster.

이경식 옮김. 1999.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어니스트. 서울 문예출판사.

이혜리 옮김. 2005.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어니스트. 서울 청목.

황중호 옮김. 2005.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어니스트. 서울 하서출판사.

홍미란 옮김. 2003.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어니스트. 서울 도로서.

Henry, O. 1980. *The Last Leaf*. London Routledge.

강영길 옮김. 1994. 『마지막 잎새』. 헨리, 오. 서울 일신 서적출판사.

김선영 옮김. 2003. 『마지막 잎새』. 헨리, 오. 서울 좋은 생각.

박수남 옮김. 2002. 『마지막 잎새』. 헨리, 오. 서울 육문사..

신현미 옮김. 2003. 『마지막 잎새』. 헨리, 오. 서울 도로서.

[Abstract]

Female's Translation Styles in Novels.

Kim, Dong Mie

(Sej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ranslation styles in male and female and to set up a translation strategy. In order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language used in both male and female translators' works, I analyzed the female's and male's styles through lexical as found in seven novels. Three of these works were written by female, the other four by male.

The step was to compare the styles of female and male in dealing with the form of the adverb. The fact that female tend to repeat adverbs is found in the works of Korean female translators. They tend to use female's language even if the SL writer is a man.

female and male have different styles of translation. Usually the style of female translators is applied to the TL's female language. They tend to use female's language when they translate the SL to TL. This female's style of translation echoes early feminist translators who tried to show female's voices through the translation process. Female translators tend to translate the female's language of the source texts more accurately and equivalently. The existence of female's distinctive translation styles means much in the world of Korean translation, since it contributes to the forming of an important translation strategy. I suggest that the faithful and equivalent translation of the female writers' literary works should be conducted by female translators who are more keen and sensitive to female's language in the source texts.

▶ Key Words female's language, target language, source language, translation, female translator.

(1) 어휘적 차이 부사의 반복 사용

부록 [1]

『노인과 바다』

<ST1>

Twice more it was the same on the turns. I do not know, the old man thought. He had been on the point of feeling himself each time. (91)

<TT1> MT- 다시 두 번 더 원을 그렸지만 마찬가지로 사태만 일어났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매번 거의 기절할 뻔했다. (이경식 94)

<TT2> FT- 고기는 두 번 더 들었는데 그때마다 마찬가지로였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았다. (홍미란 80)

<ST2>

The shark swung over and the old man saw his eye was not alive. (102)

<TT1> MT- 상어는 온몸으로 떨어졌다. 노인은 상어의 눈이 이제는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경식 102)

<TT2> FT- 상어는 온몸을 후들후들 떨어졌다. 노인은 상어의 눈에 이미 생기가 없음을 알아차렸다. (홍미란 100)

<ST3>

'I'll try it again,' the old man promised, although his hands were mushy now and he could only see well in flashed. (93)

<TT1> MT- '다시 한 번 해보자' 하고 노인이 다짐했다. 노인의 두 손은 부풀어 올라 엉망이었고, 눈도 가물거리며 순간적으로 조금씩 보일 뿐이었다. (황종호 101)

<TT2> FT-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노인은 결심했다. 그러나 이제 두 손은 짓무르고 눈도 깜빡깜빡해서 순간적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이혜리 85)

<ST4>

He clubbed at heads and heard the jaws chop and the shaking of the skiff as they took hold below (118)

<TT1> MT- 놈들이 주둥이로 고깃점을 물어뜯는 소리를 들었고, 배 밑에서 고기를 물고 흔들어대는 것을 느꼈다. (황종호 128)

<TT2> FT- 주둥이로 살점을 뜯는 잘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배 밑에서는 고기를 물어 뜯을 때마다 배가 흔들흔들 했다. (이혜리 108)

부록 [2]

「제인 에어」

<ST1>

She hauled me to the washstand, inflicted merciless, but happily brief, scrub on my face and hands with soap, water, and a coarse towel; (29)

<TT1> MT-그녀는 나를 세면대로 끌고 가 비누와 물과 거친 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사정 없이 문질렀다. (박종학 39)

<TT2> FT-그녀는 나를 세면대로 끌고 가 비누와 물과 기칠거칠한 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사정없이 그러나 다행히도 대강대강 문질러 씻겼다. (김문영 44)

<ST2>

I desired to be tall, stately, and finely developed in figure (98)

<TT1> MT-키가 늘씬하게 크고 몸매가 멋지게 자랐으면 하기도 했다. (김성구 112-113)

<TT2> FT-키가 후리후리하고 몸집이 당당하고 멋지게 자랐으면 하기도 했다. (김수연 102)

<ST3>

I walked fast till I got warm...(11)

<TT1> MT-나는 몸이 후끈해질 정도로 재게 걸었다. (박종학 131)

<TT2> FT-나는 몸이 후끈후끈해질 만큼 재게 걸었다. (김문영 128)

<ST4>

“but he looked an erie creature to be alone with...” (119)

<TT1> MT-그러나 같이 있기엔 달갑지 않은 짐승처럼 여겨졌다. (박종학 139)

<TT2> FT-그러나 그 순간, 그 개가 무시무시한 짐승처럼 여겨졌다. (김문영 136)

부록 [3]

「위대한 갯츠비」

<ST1>

“If I was them I'd get a divorce and get married to each other right away.” (20)

<TT1> MT- “나 같으면 빨리 이혼해 버리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 텐데 말이예요.” (김의승 57)

<TT2> FT-“내가 저 사람들이라면 빨랑빨랑 이혼하고 함께 살텐데.” (김연희 44)

<ST2>

There was the boom of a bass drum, and the voice of the orchestra leader rang out suddenly above the echolalia of the garden. (41)

<TT1> MT-그때 갑자기 베이스 드럼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목소

리가 정원의 소음을 모두 삼키고 울러피졌다. (김의승 78)

<TT2> FT-갑자기 베이스 드럼이 요란스럽게 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목소리가 정원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사람들의 시끌시끌한소리를 누르고 울러 퍼진다. (김연희 64)

<ST3>

I was alone and it was almost two (42)

<TT1> MT-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어느덧 새벽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김의승 80)

<TT2> FT-나는 혼자 남아 있었다. 시간도 그럭저럭 새벽 2시가 가까워졌다. (김연희 68)

김동미

세종대, 한국번역학회 회원

belle-kim75@hanmail.net

관심분야 영문법, 문학번역

논문투고일 2009년 1월 29일

심사완료일 2009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7일